

「금강」의 에로스적 상상력 연구

Erotic Imagination Research in 「Geumgang」

이혜미(단국대 박사과정)

차 례

- | | |
|---------------|---------------|
| 1. 서론 | 2. 전복(顛覆)의 기능 |
| 3. 조화와 보존의 기능 | 4. 결론 |

1. 서론

인간은 성적본능(sexual instinct)을 가지며, 문학 작품은 인간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다. 성적본능을 기저로 한 에로스(Eros)는 인간의 보편적인 의식을 형성하는 상상력의 원천¹⁾이므로, “작가의 무의식이 중심적인 기여(central contribution)”²⁾를 하는 문학 작품에 에로스적 이미지가 구현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가볍게 치부(置簿)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성적본능은 정신의 무의식적 영역이지만 작품 속에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작가가 ‘의식적으로 설정한 문학적 장치’가 되기

1) 정영자, 「문학 속에 나타난 성 표현의 역사」, 『문학사상』 1월호, 문학사상사, 1999, 357쪽.

2) Rene Welle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49, p.208.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품 속에 나타난 에로스적 이미지는 ‘무의식적 영역’이 아닌 작가가 의도한 ‘의식적 영역’이며, 이를 분석하는 것은 문학연구에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에로스적 이미지가 나타난 작품을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바로 개념의 병용(並用) 때문인데, 본디 에로스는 플라톤의 향연에서 나타나듯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연구에는 명확한 개념이 연구방법론으로써 활용되어야 하지만 에로스라는 개념은 다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다의적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활용된다는 의미이므로 명확성이 내재한다고 볼 수 없었다. 또 ‘사랑’은 추상적이므로 이를 지칭하는 에로스 역시 추상성이 내재한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문학 작품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를 연구할 때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가 된 Gender로서의 성이 활용되었다.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성 혹은 남성성의 의미를 도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여성성의 경우 원형(原型)적 접근이 다수 시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로스적 상상력이라는 명제를 붙인 것은 과거보다 에로스의 의미가 다소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개념이 병용되었다면, 근대에 이르러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인 성애(性愛)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에로스라는 개념이 구체성을 획득하였으므로 연구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과거에는 성 가운데 여성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면,³⁾ 현재는 에로스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남녀가 육체적 교감하는 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작가의 세계관을 비롯한 “모든 것을 지시해주는 것이 이미지의 힘이자 사명”⁴⁾이며, “단어 하

3) 김영철에 의해서 신동엽 연구에 ‘에로티시즘’이라는 용어가 활용되기는 했다. 그는 “신동엽의 반문명 의식과 원시적 상상력은 자연스럽게 원초적 생명체를 바탕으로 한 에로티시즘의 구현으로 표출된다. 그의 시 도처에서 현란한 에로티시즘의 축제가 펼쳐진다. (...) 그러므로 그것은 생산적인 개념과 관련된다. 즉 다산과 풍요의 이미지를 갖는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이는 신동엽 작품에 묘사된 여성성 연구, 즉 원형 연구라고 볼 수 있다. : 김영철, 『신동엽 시의 상상력 구조』, 『우리말글』 제16호, 우리말글학회, 1998, 11쪽, 참조.

4) Mircea Eliade, 이재실 옮김, 『이미지와 상징』, 까치, 1998, 24쪽.

나, 비유 하나라도 그것은 작품 전체와 긴밀한 문맥적 관계를 갖고”⁵⁾ 있다. 만일 작품 속에 성적 이미지가 구현되었다면 이를 분석하는 일은 문학 연구자의 사명이 된다. 작품의 발표 시기는 고정되지만 작품을 보는 관점은 지속해서 변한다. 시대가 흐를수록 이론은 보강되고 그에 따라 사고의 폭은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과거의 작품을 현시점에서 해석해야만 하며, 이 시대에 에로스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 맥락에서 1960년대 작품인 신동엽의 「금강」은 해석의 가치가 있다. 신동엽의 시에는 원형의 실례가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여성성을 상징하는 대지, 강물, 꽃 등의 이미지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그에 관한 담론은 여성성에 집중되는데 정작 대표작인 「금강」은 해당 담론과 거리를 두고 있다.⁶⁾ 「금강」은 원형적 접근으로써 해석하기에 여타의 작품과 다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신동엽의 여타 작품은 여성성을 환기하는 명확한 원형이 등장한다면, 「금강」에는 원형이 아닌 남녀 간의 육체적인 성이 묘사되고 있다. 더 나아가 여타 작품에서 여성은 남성을 포함한 만물의 상위에 위치하지만, 「금강」에서 여성은 남성의 하위에 위치하여 남성을 에로스적으로 자극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명확한 상징이 대상이 되는 원형적 접근으로는 「금강」을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신동엽 성 담론에서 대표작 「금강」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연유에 관한 의문에서 시작되어, 그가 작품에 에로스적 상상력을 구현함으로써 획득하고자 했던 “인식의 전부”, “광범위한 정신의 집단과 호혜적 통로”⁷⁾의 의미 도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의거한 연구 방향은 다

5) 심원섭 외, 『문학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132~138쪽.

6) 이에 관한 내용은 논자의 석사학위논문 부록 〈신동엽 연구 양상 색인(1960-2000년대)〉을 참조할 것.; 이해미, 「신동엽 담론 양상 연구 - 「금강」론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66~95쪽.

7) “詩란 바로 생명의 발현인 것이다. 시란 우리 인식의 전부이며 세계 인식의 통일적 표현이며 생명의 침투며 생명의 파괴며 생명의 조직인 것이다. 하여 그것은 형식 보다 광범위한 정신의 집단과 互惠의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동엽, 「詩人精神論」, 『신동엽전집』, 창작과비평사, 2004, 370쪽.

음과 같다. 첫째, 「금강」에서 에로스적 분위기를 환기하는 부분을 찾고 그 양상을 파악한다. 둘째, 「금강」에서 에로스적 이미지의 기능을 파악한다. 신동엽의 작품은 한국문학 비평 정립에 이바지한 창작과비평과의 문학론에 실증적 근거가 되었으며, 특히 「금강」은 한국 문학사에서 서술시 장르가 정립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연유로 현시점에서 「금강」을 해석하여 가치를 더하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전복(顛覆)의 기능

「금강」은 민중적 소재인 동학을 차용하며 이에 따라서 역사적 인물들이 동학농민혁명을 감행한다는 서사를 가진다. 신동엽이 역사시로 표명한 만큼 「금강」에는 농민전쟁(제1장), 1854년 세계상(제12장), 교조신원운동(제14장),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제15장), 동학농민혁명(제17장), 청일전쟁(제18장), 우금티 전투(제19장)와 같은 사실(事實)이 전개되며, 허구적 인물인 신하늬가 주인공으로 설정되고 있어서 서사시의 면모까지 보이고 있다.⁸⁾ 논자가 주목하는 문제적 요소는 ‘밖’에서는 이조(제1장)를 비롯한 지배층의 억압과 착취, 여기에서 비롯한 농민들의 고통과 항거하는 농민들로 혼란스러운 세계가 전개되는데, ‘안’에서는 남녀의 육체적인 성의 세계가 구현된다는 것이다. 「금강」에서 에로스적 상황이 처음으로 구현되는 부분은 제10장인데, 제1장부터 제8장까지는 현실의 부정적인 면모가 점층적으로 나타난다. 농민반란(제1장), 분단화 및 분업화된 산업

8) 이로써 역사시의 면모가 퇴색된다고 보는 연구자도 있지만, 이는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된다. 신동엽은 「금강」을 역사시와 서사시로 표명했다. 이들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사실의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서사성이 내재’해야 한다. 신동엽은 발생시기와 활동인물이 다른 사실들을 서술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연결하는 요소가 필요했을 것인데, 만일 신하늬와 더불어 중추적 인물로 나오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시를 전개했다면 사실의 변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즉, 신동엽은 신하늬를 설정함으로써 역사시와 서사시의 성질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제6장), 근대 이후의 가난(제7장)과 같이 현실의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면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상황은 제9장에서 극대화되는데, 이 장에서 현실에 관한 신하늬의 분노가 표출된다. “벌거벗었던 마누라의/붉은 肉體./몸부림치고 있었다/흐느끼고 있었다./하필이면 그 늙어빠진 金진사와” 처럼 신하늬는 지배층으로 대변되는 김진사와 아내의 간통을 목격한다. 이들의 간통은 사회적 모순에서 비롯한 것이다. “목화밭과 수수밭 사잇길에서/그녀는 나타났다./조기를 한 꾸러미 들고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내와 김진사의 관계에는 ‘조기 한 꾸러미’라는 물질적인 요소가 개입한다. 또 “살아가기란 어려운 일인가./눈을 뜨지 못한 짐승./그렇다./우리 주위엔 얼마나 많은/눈 뜨지 못한 짐승들이/사람 탈을 쓰고/밀려가고 있는가./하나 어찌 할건가/우리는 또 무언가./문제는 끝나지 않는다./저 여자만의 문제로/끝나는 건 아니다./얼마나 많은 사람들이/피속서 저러고 싶어/꿈틀거리고 있을건가.”라는 신하늬의 서정적 발화를 통해서도 영주와 농노의 지배·피지배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장에 서술된 발화에는 ‘짐승’, ‘두 마리의 버러지’와 같이 부정적인 단어가 활용되고 있다. 제3장과 제5~7장에 제시된 서정적 발화와 비교하더라도 분노의 정도가 크다.⁹⁾ 또 신하늬는 사회적 문제를 자각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한다. 신하늬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표출한다는 점, 사회에 대한 항거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제9장은 부정적 현실상이 극대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서화에서 제8장까지 전개된 부정적 현실상은 제9장에서 극대화된다. 그리고 제10장에는 현실 원칙이 아닌 쾌락 원칙이 지배하는

9) 제9장 이전에서 나타난 서정적 진술의 상황은 ‘금강에서 서술자 자신을 각성(제3장)’, ‘마한과 백제의 원시공동체에 관한 작자 자신의 전망(제5장)’, ‘두레로 노동을 교환하는 원시공동체와 분단과 극분업화로 특징되는 산업사회의 대비(제6장)’, ‘근대 이후의 가난에 대한 작자의 인식(제7장)’이다.

에로스적 상황이 전개된다.

하늬는
가을 산을
헤매고 있었다.
허리엔 두 켈레의 짚신
그리고 피나리봇짐.
수건을 꺼내어
이마의 땀을 닦았다.
그런데 웬일일까.

女人,
단풍 물든 자작나무 가지를 헤치며
옷보자기 끼고
산 속에 나타난 宮女.

(중략)

두 사람은
가을을 열어놓은
산골짜기에서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중략)

山 속에 핀

무지개.
향내가 골짜기를 흔들었다.
눈빛이
바위 속 젖어들었다.

(중략)

하늬는
억새꽃을 받아
입에 물고,
女人의 손목 쥐며
얼굴 들여다보았다.

흘러가는 강물.
가까운 거리에서
원초스런 눈초리로
일진, 일퇴,
속삭이고 있는
둘의 눈동자

열려 있는 窓門이었다.
자기들의
內室의
空間을
보여주고 있는
열려 있는 창문
둘이서, 時間을 거스르며

抒情을

두레박질하고 있었다.

—「금강」, 제10장 부분

이는 신하늬가 아내와 김진사의 간통을 목격하고 지배·피지배 관계에 관한 분노가 극도로 표출한 다음에 전개된 상황이다. 신하늬는 아내가 간통에 대한 죄책감에서 자살하자 항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길을 나선다. “허리엔 두 켄레의 쥔신”이 있고 “괴나리봇짐”을 가진 신하늬는 산속에서 여인 인진아를 만난다. 남성인 신하늬와 여성인 인진아는 서로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가 “눈빛이 바위 속 젖어” 들며 교감을 한다.¹⁰⁾ 현실세계에서 사회의 원리가 철저하게 작동할수록 그 속에서 구현되는 에로스적 세계는 부각되기 마련이다. 신하늬가 있는 사회는 지배-억압의 구조 때문에 민중의 불안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회상에는 현실 원칙만이 내재한다고 할 수 있고, 뒤에 배치된 에로스적 세계는 쾌락 원칙만이 내재한다는 점에서 원초적이며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쾌락 원칙으로 지배된 에로스는 정신의 무의식적인 영역이므로 의식적인 영역인 현실의 이미지보다 “단순하고 감각적이고 정열적인”¹¹⁾ 이미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신하늬와 인진아의 감각적인 정신적 교감은 곧 육체적 교감으로 이어져 그들의 에로스적 영역은 확대된다.

이야기가 소용 없었다

촉촉히 젖은

10) 물론, 이로써 신동엽의 여타 작품에서 보이는 여성성의 역할까지 전복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신동엽 시에 나타난 여성은 생산과 치유를 상징한다는 것에서 Gender의 개념을 따르는데, 「금강」의 인진아 역시 신하늬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위 대목에서 보이는 바, 신하늬와 인진아는 서로의 ‘내실’을 공개하며 ‘서정’을 공유한다. 단순한 육체적 교감이 아닌 정신적인 교감이 우선시 되는데, 이는 정신적으로 안정을 제공한 것이므로 정화 및 포용이라는 여성의 원형적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금강」에서 드러나는 여성성은 여타 작품 속 여성의 개념을 따른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11) 남진우, 『미적 근대성과 순간의 시학』, 소명출판, 2001.

둘의 입술,
가늘게 떨리면서
열렸단 밋고
열렸단 말 뿐,

손과 손
마음과 마음
歷史와 역사는
엮혀 흐르면서
빼 없이 녹아,

구석과 구석을 적시고
地上에서 天上을 향하여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諧調의 音樂이 되어
무한한 空間을
흘리가고 있었다.

—「금강」, 제10장 부분

정신적 교감에서 육체적 교감으로 확대된 에로스적 영역이 부각되는 이유는 감각의 전복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신동엽은 서화에서 제9장까지의 시각적 심상을 동원하여 현실상을 서술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영주가 농노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농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재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로스적 상황은 ‘촉촉히 젖은/둘의 입술,/가늘게 떨리면서/열렸단 밋고/열렸단 말 뿐,’처럼 촉각적 심상이 동원되고 있다. 서화에서 제9장까지는 시각적 심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제10장에서는 촉각적 심상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감각의 전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감각의 전복이 기쁨과 슬픔, 선과 악처럼 다른 성질을 일직선으로 나열한 병치(並置)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병치의 조건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대립인데, 「금강」에 나타난 에로스적 상황은 현실 속에 있는 산에서 구현된 것이다. 이는 속(俗) 안에 성(聖)이 구현된 것이므로 동등한 위치에서의 대립이라고 할 수 없다.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진 감각의 대립이 아닌 속 안의 성에서 이루어진 감각의 대립이므로 이분법적 심층 구조(deep structure)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에서
일찍, 잠 깬
새벽바람이
삼베적삼 속
기어들었다가, 소매 밖으로
나갔다,
바람내, 그렇지
머릿다발의 진아 살내,

①『길은 아직
있습니다,

正攻法,
만 피하면 됩니다
정공법만.

—「금강」, 제18장 부분

비단자락 밑의
살 냄새,

②하늬의 마음과 몸은
휘말려 갔다,
혁명처럼,
해주로.

—「금강」, 제19장 부분

진아의 보드라운 볼 어루만질 때
그리고 그녀의 가슴
허리 아래 어루만질 때
이 손은 내 전부였다.

(중략)

③눈을 떴다
太陽이 하늘 한가운데
박혀 빛난다.

—「금강」, 제21장 부분

「금강」에 나타난 에로스적 공간에서 고찰된 감각의 전복은 시각적 심상에서 촉각적 심상으로의 전이에 그치지 않고, 후각적 심상과 촉각적 심상으로도 확대된다. 제18장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이조왕가가 청·일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농민군들의 운동에 위기가 온 상황이다. 동학농민군 총본부는 이조왕가와 협상회의를 하는데 자진철수를 권유받는다. 서울로 복상하기 전에 철수할 상황에 직면한 동학농민군 총본부는 항거를 보류한다. 이 상황에서 신하늬는 갈등을 하다가 인진아를 떠올리는데 “바람내, 그렇지/머릿다발의 진아 살내”처럼 에

로스적 상황이 연출된다. 에로스는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므로, 이 역시 에로스적 상상력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살내’라는 후각적 심상이 동원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제19장은 동학농민군 총본부가 항거를 보류하고 신하늬가 귀향길에 오른 상황이다. 신하늬는 금마라는 지역에 거쳐서 고향으로 왔는데, 고향의 들길과 콩밭 그리고 앞산에서 인진아를 떠올린다. 고향은 항거 운동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성의 공간인데, 이 영역에서 “비단자락 밑의/살냄새”처럼 후각적 심상이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1장은 항거를 보류했던 동학농민군 총본부가 긴급소집령을 내리고 아이, 여성, 노인까지 전 국민이 이에 동참한 상황이다. 지배세력에 대한 국민의 대항운동이 첨예한 가운데 신하늬는 “상봉에 올라 바위 위 무릎 꿇고” 있었는데 자신의 손을 보면서 인진아를 떠올린다. 이 역시 성의 영역인 산에서 인진아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에로스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진아의 보드라운 볼 어루만질 때/그리고 그녀의 가슴/허리 아래 어루만질 때”와 같이 촉각적 심상이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금강」 속 에로스적 상황에서 시각적 심상이 촉각적 심상과 후각적 심상으로 확대되므로 ‘시각적 심상에서 공감각적 심상으로 감각이 전복’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의 주요 배경은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소재에 따라서 ‘현실 원칙이 팽배한 사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동엽은 현실 원칙과 단절된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신하늬와 인진아가 교감을 구현했다. 논자는 이를 신동엽이 「금강」에 에로스적 상상력을 가미했다고 해석하는 바이다. 「금강」의 에로스적 이미지는 무질서한 사회의 이미지 다음에 배치되고 있었다. ‘현실 원칙만이 있는 사회의 이미지’ 다음에 ‘쾌락 원칙만이 있는 에로스적 이미지’가 배치된 것은 지배-피지배 관계라는 ‘상호 대립의 이미지’ 다음에 남녀의 성애라는 ‘상호 교감의 이미지’가 배치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또 ‘시각적 심상’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이 배치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에로스적 상상력이 부여됨으로써 이

미지의 흐름이 전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를 의도한 작가의 사유를 생각해야 한다. 작품 속 모든 요소는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에로스적 상상력으로써 이미지를 전복한 것 역시 작가 의도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신동엽이 전복의 상상력을 구현한 이유를 밝힐 수 있다면 이는 작가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작품 속 이미지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설정된 의식의 산물이며, 휠라이트가 언급한 병치은유(並置隱喩, Diaphor)¹²⁾처럼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이미지가 제시되면 이는 의미론적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논자는 이를 앞서 제시한 제18장, 제19장, 제21장 부분에 표시한 ①, ②, ③을 통해서 찾고자 한다. 앞서 제18장, 제19장, 제21의 상황을 설명했듯이 신하늬는 갈등의 상황에서 인진아를 환기한다. ‘진아 살 내’, ‘진아의 보드라운 볼 어루만질 때’, ‘그녀의 가슴’, ‘허리 아래 어루만질 때’처럼 인진아와 교감했던 상황을 떠올린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하늬가 인진아와의 에로스적 상황을 환기한 다음에 ①『길은 아직/있읍니다.//正政法./만 피하면 됩니다/정공법만’, ②‘하늬의 마음과 몸은/휘말려 갔다./혁명처럼./해주로’, ③‘눈을 떴다/太陽이 하늘 한가운데/박혀 빛난다’에서 고찰되는 것처럼 자각한다는 것이다.

①『길은 아직/있읍니다.//正政法./만 피하면 됩니다/정공법만’이라는 자각이 나온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동학군의 항거에 위협을 느낀 이조왕가는 청·일군을 동원하여 동학농민군 총본부에 자진철수를 제안한다. 외세의 개입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이조왕가가 동원한 청·일군은 청일 전쟁까지 벌인다. 이에 전봉준은 철수를 고려하는데 신하늬 역시 갈등을 한다. 서울 점령이라는 고지가 곧 도래할 순간이었으므로 철수는 곧 항거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하늬는 갈등의 상황에서 인진아를 떠올렸고 직후 정공법을 피하면 된다는 묘책이 나온다. ②‘하늬의 마

12) 휠라이트는 시에 언어와 이미지가 병치되면 새로운 의미가 생성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Wheelwright, P.E., *Metaphor and Reality*, Indiana University Press, 1962, 참조.

음과 몸은/휘말려 갔다./혁명처럼./해주로'라는 자각이 나온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봉준이 신하늬의 방안에도 항거를 보류하고 동학농민군 총본부는 해산한다. 신하늬는 고향으로 가기 전에 “백제의 꽃밭”이라고 불리는 금마라는 지역에 들어서 백제를 회상한다. “돈나물./미나리방죽, 냉이/달래 캐던 그 가녀린/손매디들은 어디 갔을까”, “우린/어디까지 왔을까” 처럼 역사를 그리워하고 현세대의 위치에 대하여 고민을 한다. 그리고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인진아를 떠올리는데 직후 혁명에 대해서 재각성을 한다.

③‘눈을 떴다/太陽이 하늘 한가운데/박혀 빛난다’라는 자각이 나온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대가 조선을 점령하려고 하자, 전봉준은 전 농민군에게 긴급 동원령을 내린다. 농민을 비롯한 전 민중이 항거하지만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대립은 첨예해진다. 사회의 불안정이 고조되자 신하늬는 산으로 올라간다. 일본군을 죽였던 자신의 손을 보면서 인진아를 떠올렸고 직후 긍정적인 자각을 한다. 이처럼 ①, ②, ③은 신하늬가 고뇌하는 상황에서 인진아와의 교감을 떠올린 직후에 나타난다. 신하늬가 인진아와의 교감을 회상한 직후에 자각이 이루어지므로, 에로스적 상황은 그에게 내적 파토스(pathos)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에서 신하늬는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상기했을 때, 신동엽은 에로스적 상황을 배치함으로써 역사의 주체에 대한 민중의 각성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신동엽의 에로스적 상상력은 신하늬와 인진아의 교감으로 변주되면서, 이미지의 흐름을 전복하고 민중으로 하여금 내적 파토스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조화와 보존의 기능

에로스의 본질은 생명의 잉태이다. 상대방에 대한 성적 욕망은 쾌락에

대한 충동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생명 잉태에 대한 갈망으로 확대된다. 성의 세계는 현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실체제와 대립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 세계가 현실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불온(不穩)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인류 존속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인류다윈설에 따라서 인류 기원에 대한 확실한 학설은 없으나, 인류 존속은 인간의 생식 행위로써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류는 삶을 영위하려고 원시상태의 자연을 물질, 기술, 사회 구조적으로 발전을 시켰다. 하지만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달해도 인류 존속의 문제는 자연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인류가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성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의 세계는 물질이 유일하게 침투하지 못하는 원시적 공간이며, 이는 인류를 존속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미래를 향한 역사추진의 에너지”¹³⁾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신동엽 작품에 드러나는 ‘미래 지향적 에너지의 표상’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금강」과 여타 작품에서 다르게 표현되는데, 여타 작품에서는 ‘씨’로써 표상한다. “오랜 氷河期의 얼음장을 뚫고 연연히 목숨 이어 그 거룩한 씨를 몸지녀 오느라고”(『정본 문화사대계』의 부분), “얼음 뚫고 새 흙 깊이 씨 묻어두자”(『싱싱한 동자를 위하여』의 부분)처럼 ‘씨’는 미래로의 추동을 나타낸다. 겨울을 견디고 대지 밖으로 나오는 ‘씨’를 통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생명력을 은유한 것이다. 하지만 「금강」에서 ‘씨’는 “우스운 인연이균요/고구려의 밭,/백제의 씨”(『금강』, 제11장 부분)처럼 여성성을 상징한다. 신동엽에게 여성성은 재생산과 치유를 의미하므로 이 역시 미래로의 추동과 관련은 있지만, 이는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와 양분을 제공하는 공급원”¹⁴⁾을 의미하므로 다른 맥락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금강」에서 생명력은 신하늬와 인진아

13) 김영철, 같은 글, 12쪽.

14) 임원준, 「신동엽 서사시 「금강」에 나타난 모성담론」, 『한국문화기술』 제12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1, 100쪽.

의 에로스에서 탄생한 ‘아기 하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아기 하늬가 가진 힘은 제25장에서 제26장까지 등장하는 인진아의 서정적 발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제25장은 인진아가 ‘아기 하늬를 잉태한 상황’이며 제26장은 ‘아기 하늬가 탄생한 상황’인데, 인진아의 정서는 두 상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진아가 속한 현 상황은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층의 투쟁이 실패함에 사회가 폐허가 되었다. 더 나아가 봉기와 투쟁에 가담한 남편 신하늬는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그의 생사 여부 역시 알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제25장에 드러난 인진아의 발화에는 사회와 신하늬에 대한 비애가 내재한다. “여성적 발화에도 불구하고 비장감”¹⁵⁾이 드는데 이는 인진아가 가진 한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정서는 제26장에서 아기 하늬가 탄생하면서 전환되는데 신하늬에 대한 사랑이 증폭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식이 표출된다. 다음은 제25장과 제26장에서 인진아의 정서 변화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살아 있을까 하늬는.

아직, 그리고

나 생각하고 있을까,

불타던

扶餘의 집,

통곡하던 마을과 마을,

그럼 우리가 갈 곳은?

(중략)

15) 같은 글, 96쪽.

하늬,
하늬를 만나기 위해
태어난 여자

하늬를
만나기 위해 성장한
육체,

곧,
또하나의 하늬가 내 몸 속에서 세상에
나온다,

진아는
눈을 감았다,

(중략)

그럼
구태여 혁명까지 조직하셨어요,
한 모서리 희생을 치러야 하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을.

—「금강」, 제25장 부분

제25장이 표출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동학농민군

의 운동은 실패하고 전봉준을 비롯하여 대항운동의 핵심인물들은 사형에 처해진다. 전국은 “가는 곳마다/都市와 마을/마을과 漁村이/쑥대밭 되던 폭격”을 당한다. 인진아는 “곧./또하나의 하늬가 내 몸 속에서 세상에/나 온다”에서 알 수 있듯이 아기 하늬를 잉태하고 있다. 아기 하늬는 신하늬와 인진아의 육체적 교감에서 잉태된 에로스적 요소인데 탄생하기 전이므로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인진아는 “그럼/구태여 혁명까지 조직하셨어요./한 모서리 희생을 치러야 하는./잘 모르겠어요”처럼 신하늬에 대한 비애를 표출한다. 이는 인진아의 정서가 결핍됨에 따라서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타던/扶餘의 집./통곡하던 마을과 마을./그럼 우리가 갈 곳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고향 상실에서 비롯한 결핍, 또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인 것이다.

또 잉태는 “주체와 타자 사이에 사랑의 분할을 가장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인 반면에 “주체의 분열이라는 극단적인 시련의 경험”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¹⁶⁾ 전자는 잉태를 남녀의 육체적 교감 즉, 에로스의 결정체라는 측면에서 보았으며, 후자는 또 다른 생명인 타자가 배가됨에 따라서 주체의 영역이 분열된다는 측면에서 본 것이다. 후자를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타자로 대변되는 생명을 잉태함으로써 주체만의 공간은 분열되는데 이는 주체의 영역에 타자가 침범하여 주체와 타자의 경계가 모호해짐을 의미한다. 타자와 명확하게 구별되었던 자신만의 영역의 상실은 정서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잉태의 의미는 전자와 후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인진아의 정서적 결핍은 후자의 경우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즉, 고향의 상실, 남편의 부재, 잉태에서 비롯한 주체의 분열이라는 세 측면은 인진아로 하여금 정서적 결핍을 야기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인진아의 결핍된 정서는 제26장에

16) 고갑희, 「시적 언어의 혁명과 사랑의 정신분석 -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경계선의 철학」, 한국 영미문화 페미니즘 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210쪽.

‘아기 하늬’가 탄생하면서 치유된다.

진아는
아들을 낳았다.
복슬복슬한
아기 하늬,

錦江의
흰 물굽이가 가물가물 내려다보이는 銅穴山,
선 길 바위 아래 초가집, 사리원택
할머니의 도움으로 꼬마 하늬가 방긋방긋
웃기 시작했다.

愛情
쏟고 있는 여자의 얼굴은
벌어진 석류알처럼 피어나고
눈동자는 물먹은 별
습기차게 빛난다,

(중략)

진아는
품속의 하늬, 얼르며
면 錦江줄기
바라보다
머루알 깨물었다.

그러나
슬프진 않았다, 하늬는
진아의 전부, 전 우주,
어디서 오는걸까, 이 사랑
이 나쁜 충족.

—「금강」, 제26장 부분

제25장에서 표출된 인진아의 비애는 아기 하늬가 탄생하면서 “愛情/쏟고 있는 여자의 얼굴은/벌어진 석류알처럼 피어나고/눈동자는 물먹은 별”처럼 애정으로 전환된다. 또 신하늬가 부재함에 따라서 결핍되었던 서정은 “그러나/슬프진 않았다, 하늬는/진아의 전부, 전 우주,/어디서 오는걸까, 이 사랑/이 나쁜 충족.”처럼 치유되고 있다. 이는 신하늬에 대한 비애가 치유되었으며 아기 하늬에 대한 모성적 사랑이 가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진아에게 있어서 신하늬라는 이성애에 대한 에로스는 아기 하늬에 대한 모성적 사랑이 가미되어 우주적인 사랑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신하늬와의 교감에서 비롯한 “흔적, 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흔적을 재현함으로써 사랑의 결핍은 극복”될 수 있다.¹⁷⁾ 여기서 재현이라는 것은 잉태가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써, 탄생한 새 생명을 교감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요소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아기 하늬가 탄생함으로써 인진아의 정서적 결핍은 극복된 것으로 해석되며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에로스적 상상력은 조화와 보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의 산물이다.¹⁸⁾ 보존은 생명이 탄생함으로써 가능하며 이는 새 생명의 미래가 구현된다는 의미에서 미래로의 추동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배계급에

17) 같은 글, 216쪽.

18) 전미경, 『에로스와 타나토스』, 『한국 현대시와 에로티시즘』, 새미, 2002, 13쪽.

대한 농민들의 항거가 실패함에 따라서 「금강」 속 사회는 붕괴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명 피해가 속출하였으므로 인류의 존속 여부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인류에게 있어서 현재는 존재하지만, 미래의 존재 여부는 가늠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인류사의 단절로 해석된다. 하지만 신하늬와 인진야의 에로스에서 탄생한 아기 하늬는 인류사를 지속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아기 하늬는 대항운동의 실패로 인류사의 지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인류에게 미래지향적 인식을 부여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아기 하늬는 현실모순의 극복을 기원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에로스에서 탄생한 생명은 “구조화된 세계로부터의 해방을 겨냥”¹⁹⁾한다. 여기서 구조화된 세계란 현실원칙이 팽배한 사회를 의미하며, 「금강」에서는 지배-피지배 관계라는 불합리한 구조가 내재한 사회를 가리킨다. 아기 하늬는 현실 원칙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던 존재이다. 현실 원칙이 팽배한 세계가 아닌 쾌락 원칙이 팽배한 에로스의 세계에서 비롯한 존재인 것이다. 신하늬와 인진야가 속한 사회를 밀폐된 구조물로 본다면, 아기 하늬는 밀폐된 공간에 부여된 새 생명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고 해석된다. 즉, 신동엽은 「금강」에 아기 하늬를 설정함으로써 “인류의 생성과 보존이라는 절대 가치적 생명정신”²⁰⁾을 형상하고자 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4. 결론

지금까지 신동엽의 장시 「금강」에 나타난 에로스적 상상력을 알아보았다. 「금강」에 나타난 성은 신동엽의 여타 작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 이재복, 「한국 현대시의 에로티시즘」, 『시작』 제21호, 천년의시작, 2007년 여름호, 46쪽.

20) 임현준, 같은 글, 109쪽.

「금강」에는 여성성을 환기하는 명확한 원형이 아닌 신하늬와 인진아가 교감하는 이미지가 구현되고 있다. 더 나아가 여타 작품에서 여성은 남성성을 포함한 만물의 상위에 위치하지만, 「금강」에서 여성은 남성의 하위에 위치하며 남성을 에로스적으로 자극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신동엽 작품이 가진 여성의 의미를 도출하는 연구에서 「금강」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작품 속에 성적 묘사가 된다고 예술성과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에서 성이 묘사되는 경우 뚜렷한 역할을 가지지 않으면 외설 혹은 불필요한 미사여구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강」에 구현된 에로스적 상황은 작가의 주제의식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예술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금강」에 나타난 에로스적 세계는 현실세계와 대비됨으로써 지배-억압 구조에서 비롯된 피지배층의 고통을 부각시키고, 문명의 발달에서 비롯된 폐단 등 사회적 모순을 극대화 시킨다. 에로스적 세계는 현실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본능, 욕망 등 원시적 생명력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를 현실세계를 묘사한 다음에 배치시키면 현실 속 폐단과 민중의 고통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써 독자는 현실 속 모순을 보다 크게 자각하여, 신동엽이 가진 문명에 대한 비판적 사고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또 신하늬와 인진아의 교감에서 탄생한 아기 하늬는 시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금강」에 에로스적 상상력이 내재하기에 현실의 비극적인 면모를 소재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생명성과 탄력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금강」 속 에로스적 이미지는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한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신동엽 성 담론에서 대표작 「금강」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연유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어, 「금강」에 구현된 성을 에로스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에로스의 개념이 구체성을 획득함에 따라서 시행될 수 있었다. 2000년대에서는 에로스라는 개념의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석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로써 현시점에서 신동엽 작품이 재해석 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논의가 확대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시의 반문명적 요소에서 비롯된 회귀의 갈망을 모성의 담론으로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시의 원형적 요소에서 비롯된 상징성 역시 모성 담론 혹은 신화적 담론으로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이 두 담론을 연계하여 에코 페미니즘을 적용한 담론으로 확대할 수 있다.

신동엽은 현대문명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포착하고 모순을 야기한 근원에 대해 물음을 가졌다. 그리고 이는 과거로의 회귀로 귀결되면서 여자, 대지, 하늘, 물 등이 작품 속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의미소는 재생산과 치유를 의미하는 모성성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설화를 통해 그 신화성을 입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모성성과 신화성은 산업화와 기술화가 가져온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에코 페미니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성성, 신화성, 생태성 각각의 관점으로 작품을 고찰한 연구 성과가 나오는 추세지만 미시적 해석에 그치고 있다. 이 셋의 유기적 관계를 모색하고 논의를 심도 있게 전개한 연구 성과는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

시대를 수평적으로 나열했을 때 작품과 연구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것은 한 작품에서 다양한 담론이 도출될 수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시대가 변화할수록 기존의 이론이 보충되고 새로운 이론이 정립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논의가 확대될 수도 있고 전복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동엽에 대한 해석은 종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작품 해석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느 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해석은 시간의 순수형식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신동엽 연구의 미종결을 강조하며, 본고에서 밝힌 모성성, 신화성, 생태성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논의를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신동엽, 『신동엽전집』, 창작과비평사, 2004.
- 고갑희, 「시적 언어의 혁명과 사랑의 정신분석-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경계선의 철학」,
한국 영미문학 페미니즘 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 김영철, 「신동엽 시의 상상력 구조」, 『우리말글』 제16호, 우리말글 학회, 1998.
- 남진우, 『미적 근대성과 순간의 시학』, 소명출판, 2001.
- 심원섭 외, 『문학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 이재복, 「한국 현대시의 에로티시즘」, 『시작』 제21호, 천년의시작, 2007년 여름호.
- 임현준, 「신동엽 서사시 「금강」에 나타난 모성담론」, 『한국문화기술』 제12호, 한국문화
기술연구소, 2011.
- 전미경, 「에로스와 타나토스」, 『한국 현대시와 에로티시즘』, 새미, 2002.
- 정영자, 「문학 속에 나타난 성 표현의 역사」,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99년 1월호.
- Rene Welle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49.
- Mircea Eliade, 이재실 옮김, 『이미지와 상징』, 까치, 1998.
- Wheelwright, P.E., *Metaphor and Reality*, Indiana University Press, 1962.

Abstract

Erotic Imagination Research in 「Geumgang」

Lee, Hye Mi

Humans have sexual instinct and literature is written by these humans with sexual instinct. Sexual images represented in this work were not an ‘unknown realm,’ but an intended ‘conscious realm.’ To analyze this is crucial to studying literature.

This study starts with the question about why 「Geumgang」 – a representative work of Shin Dong-yup’s sexual discourse – had to be eliminated from the discourse and uses the concept of Eros to investigate the sexual images in the book.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deriving the meanings of “Awareness altogether” and “Group with a wide range of mental state and mutually beneficial passage,” which he tried to achieve by creating Eros-like imagination into his work.

Shin’s work became empirical basis for the literary theory of production and criticism which contributed to establishing the Korean Literature Criticism,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narrative poetry genre. For these reasons investigating 「Geumgang」 from the Eros perspective will raise its value even more.

주제어 : 금강(Geumgang), 에로스적 상상력(Erotic Imagination), 성적 이미지(Sexual images), 신동엽(Shin Dong-yup)

논문 접수일 2012. 11. 02.
논문 심사일 2012. 11. 23.
게재 확정일 2012. 12. 10.